

 산업통상자원부		보 도 자 료		
http://www.motie.go.kr				
2017년 9월 2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27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	
배포일시	2017. 9. 27.(수)	담당부서	기계소재표준과	
담당과장	김동호 과장(043-870-5370)	담 당 자	이종현 연구관(043-870-5373)	

한국형 광해(鑛害)관리시스템,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- 제8차 ISO/TC 82(광업) 총회에서 국제표준 4종 제안 -

- 국가기술표준원은 「한국형 광해관리시스템」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,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는 제8차 광업 국제표준화 총회 (ISO/TC 82)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한국대표단을 파견하였다고 밝혔다.
- 광업분야의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는 ISO/TC 82는 1955년에 설립되어 24개국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, 36종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있고, 13종의 국제표준이 개발 중이며 이중 우리나라는 4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있다.
- 이번 총회에는 캐나다, 미국, 호주 등 20개국 50여명이 참가하였고,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도하여 신설한 광해관리 분과위원회(SC7)와 작업반(WG) 회의가 9월27일(현지시간) 진행되었다.
- 최근 광산개발의 환경피해 등을 다루는 광해*관리 표준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, 우리나라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권순동 팀장이 SC7의 간사를, 환경정책연구원의 황상일 박사가 SC7/WG1 작업반장을 맡아 이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.

* 광해 (鑛害) : 광산개발 및 폐광에 따른 수질오염, 지반침하 등의 환경피해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의미함

- 광해관리의 표준화는 광산개발의 환경 피해 방지와 지속적인 광산 개발을 위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「한국형 광해관리 시스템」은 첨단센서와 사물인터넷(IoT)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로, 주변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스마트화된 측정 관리로 효율성이 우수하여 국제표준화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크다.
-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제안하여 개발되는 ‘폐광산 광산배수 조사방법’은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광산배수의 산성도, 중금속 등의 조사 항목과 현장조사 방법 등을 규정한 표준이며,
- ‘폐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 유지관리 절차’ 표준은 폐광 후 남아있는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지속적 관리 절차와 지반침하 모니터링,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한 유지관리 방법 등을 표준화 한 것이다.
- 광업표준진흥회가 제안한 ‘폐광산 광해관리 - 복원절차’ 표준은 환경 오염된 폐광산 지역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의 전과정(조사, 계획수립, 복원, 사후관리 등)을 표준화 한 것이다.
- 국가기술표준원은 광해관리공단, 광업표준진흥회 등과 협력하여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고, 몽골, 동남아시아 등 자원부국에 「한국형 광해관리시스템」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며, 이를 통해 광해관리 분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와 폐광 후 비즈니스사업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		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종현 공업연구관(043-870-537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